

조국통일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

내외반통일 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책동을 짓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아가려는 겨레의 지향과 열망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있다.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 북과 남으로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북과 남이 따로 없고 당파와 소속, 계급과 계층에 구애될수 없다.

애국자이다. 누구나 조국과 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 조국통일에 대한 불타는 지향과 의지를 안고 과감히 떨쳐일어나 헌신적으로 투쟁해야 한다.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 제 43 차대회 진행



안전을 지키는데 중심을 두고 《우리 학생회찾기운동》, 3대에국과업수행 등을 즐기 차게 벌려온데 대하여서와 그 기간에 거둔 성과와 교훈을 구체적으로 분석총화하

민족대단결의 사상적기초- 조국애와 민족애

이러한 우리 민족의 애국 애족의 정신과 교유한 민족적기질은 온 민족의 대단결을 위한 든든한 사상정신적기초로 된다.

었다. 그는 류학동의 기초조직인 지부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문제, 3대에국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심화시키는 문제, 지도사업에서 전 환을 가져올데 대한 문제 등을 제43기기간의 기본과업으로 제시하였다.

숙원인 조국의 통일성업을 하루빨리 이룩할수 있다. 민족의 대단결이자 조국통일이다.



온 겨레를 통일성업으로 부르는 노래- 《조선은 하나다》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들로 갈라진지도 어느덧 70여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세무아프게 통탄하며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장내기 위해 조선민족이라면 누구나 통일의 한길에 떨쳐나서자고 절절히 호소하고있다.

해를 따라 자주의 한길로 통일의 한길로 조선은 하나다

반만년의 피줄을 이어온 우리는 하나의 민족 백두산의 줄기가 내리어 이 땅은 하나의 강토 갈라져 맺혀서나 헤쳐져 몇해되거나 겨려어 나서라 통일의 한길로 조선은 하나다

미국은 남조선에 피물은 근화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가장 야만적인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친탁자, 강점자로서의 극악한 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내었다.

노래 3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강령이 우리 민족이나 같 통일의 앞길을 밝혀주셨듯이 우리는 반드시 통일을 이룩하고있다.

《조선은 하나다》, 이것은 노래제목이기에 전에 그대로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역세계 뿌리내린 통일신념이 고의라고 할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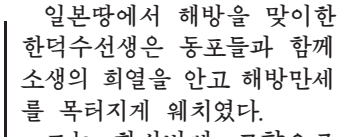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이 들로 갈라지고 남녘의 겨레가 외세의 지배로부터 참을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당하고있는것은 실로 가슴이 아픈일이 아닐수 없다.

노래는 강한 호소성과 전투성으로 하여 겨레의 가슴마다에 확고한 통일신념과 의지를 안겨주었다.

노래 1절에도 있듯이 조선민족은 예로부터 하나의 강토에서 한민족을 이루고 살아왔으며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지고있다.

단결하자 조선민족아 통일의 문을 열자 혁명의 태양을 따르는 민족의 마음은 하나 수령님 밝혀주신 5대강령

하지만 노래는 오늘도 겨레의 가슴마다에 조선은 둘이 아닌 하나이라는 역사의 통일신념과 의지를 안겨주며 성스러운 통일진군길에서 계속 높이 울리고있다.



일본땅에서 해방을 맞이한 한덕수선생은 동료들과 함께 소생의 회의를 안고 해방민재를 목터지게 웨치었다.



해외교포운동의 명망높은 활동가로 (2)

당시 한덕수선생은 38살의 로종각이었다. 그때까지 가정을 이룰 생각을 하지 못하였던 아들

들에게 서한 《재일 100만 동포들에게》를 보내주시었다.

최적인 《단독정부》수립책동이 공공연히 벌어지고있었다.

기를 형성한 위장을 만들어 달고 다니기도 하였다.

당시 일본당국은 미군정의 지시하에 조선으로 가는 모든 통로를 막아버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귀국을 포기하게 하였다.

당시 한덕수선생은 38살의 로종각이었다. 그때까지 가정을 이룰 생각을 하지 못하였던 아들

민족분열의 먹구름이 강토에 드리우있고그 무렵에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의 밝기로 평양에서 북과 남의 제정당, 사회단체 대표자선생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말할것 없고 남녘땅 가까운 쓰시마와 절해고도 이예 지방에도 공화국이 펴릴 휘날렸으며 도포를 비롯하여 부, 현에서 수십만명의 동포들이 참가한 중앙정부수립총대회가 열렸다.

한덕수선생의 아내 림수현은 후날 재일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약하였으며 오늘 평양의 신시리예국립사원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고있다.

민주개척이 실시된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속에 통일적중앙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있으나 친일침미세력익득세하는 미군강점지의 남조선

통일적중앙정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되었다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접한 재일동포들은 정성다해 만든 람후생공화국기를 지붕 위에 높이 띄웠으며 공화국

그것은 민족의 아버지를 높이 모신 어머니조국이 안겨준 존엄이었고 동포들이 투쟁으로 얻은 값높은 긍지였다.

민족의 통일지향에 역행한 대결광들의 말로

남조선에서 출간한 도서 《민족분단과 통일문제》에는 이렇게 서술되어 있다.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국도량단과 민족분열의 비극을 강

도량단과 민족분열의 비극을 강의 력사이기도 하다.

시 못하였다.

본사편집부는 반통일미국정책에 매달려온 남조선의 력대 보수 《정권》들의 책동과 그 비참한 말로로 이번호부터 대보낸다.



하와이로 쫓겨가 무주고혼이 된 리승만

사실상 리승만미국도당은 우리 조국을 들로 갈라놓으려는 외세에 적극 추종하여 범죄적인 5.10단통선거를 강행하는 친추에 용납 못할 매국배행위를 감행하였다.

《보안법》은 동족인 복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에 나선 사람들을 범죄시하고 가차없이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온 반통일과외압법이다.

리승만도당은 미국의 사측하에 1950년 6월 25일 끝끝내 북침전쟁의 불을 질렀다.

리승만 《정권》의 반인민적, 반통일적책동은 마침내 남조선인민들의 땀이요생인 원한과 분노를 폭발시켰다.



리승만도당은 제4대민의원 선거를 앞둔 1958년 1월에 진보당의 《명화통일구호가 국사에 위반》되며 《불은》하라는 구실로 진보당을 비법화하고 수많은 진보당의 당원들을 체포투옥하였으며 1959년 7월 31일에는 진보당 당수 조

리승만도당은 미국의 사측하에 1950년 6월 25일 끝끝내 북침전쟁의 불을 질렀다.

리승만 《정권》의 반인민적, 반통일적책동은 마침내 남조선인민들의 땀이요생인 원한과 분노를 폭발시켰다.